

2008 대입전형

수능 > 논술 > 학생부 순 '맞춤식 공부'를

대입전략 어떻게 세울까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일정

Table with columns: 모집시기구분, 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비고. Rows include 수시모집 (1, 2학기) and 정시모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수시2학기(일반전형/인문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Table showing admission ratios for various universities (e.g., KAIS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ross different criteria like 100%, 80%, 60%, 50%, 40%, 30%, 30% or less.

수시2학기(일반전형/자연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Table showing admission ratios for various universities (e.g., KAIS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ross different criteria like 100%, 80%, 60%, 50%, 40%, 30%, 30% or less.

정시모집(일반전형/인문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Table showing admission ratios for various universities (e.g., Seoul National University, KAIST) across different criteria like 100%, 80%, 60%, 50%, 40%, 30%, 30% or less.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분포

Table showing the distribution of university admission ratios based on SAT scores (100%, 80%, 60%, 50%, 40%, 30%, 30% or less).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은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고 대학별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식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입시부터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아닌 9등급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인 만큼 영역별로 철저한 등급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적을 잘 관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며 논술이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 각 교과목 공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맞춤식 전략'세워 대비해야=각 대학마다 전형요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중시하는 전형 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수험생들은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3~5개 정도 조기에 선택해 이들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영역이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번 입시에서도 수능은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보이며 올해부터 도입되는 수능 등급제에 따라 각 영역의 철저한 등급 관리가 요구된다.

수능 성적은 9등급으로만 제공돼 표준점수나 백분위보다는 변별력이 떨어지겠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성적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채용되는 점수 체계에서는 원점수 1, 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이 등급을 점수로 환산할 경우 그 차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부는 외형상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평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비중이 높아졌고 학생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도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 내신 관리는 기본이다.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대학별 전형 달라 지원대학 입시요강 파악을

9등급제로 바뀐 수능 영역별 등급관리 필요

학생부 반영 비율 높아져 내신관리 잘 해야

대학별 모집인원

Table showing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various universities (e.g., KAIS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ross different admission types (e.g., 1st semester, 2nd semester, regular).

주요대학 입시요강

◇고려대=수시·정시 일반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50%까지 우선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응시자들 중 수능 수리과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20%)와 논술(80%)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미리 뽑는다.

◇서강대=정시 일반전형에서 30% (전체 정원 12~13%)를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70%를 학생부 교과 40%, 수능 50%, 논술 10%의 반영 비율로 뽑는다. 수시모집의 학업 우수자, 가톨릭지도자 추천, 정시모집의 능·어촌학생, 실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뒀던 지원자는 서류평가 50%에 면접 50%를 적용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 시

서울대 정시 일반 수능성적으로 3배수 뽑아

고려대 수시·정시 일반 모집단위 50% 선발

받아야 최종 합격한다.

◇서울대=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경우 고교별 지원 인원이 3명에서 4명으 늘어나며 1단계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교과성적 80%, 서류평가 10%, 면접 10%를 반영한다.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은 서류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인문계는 서류평가 50%와 면접 30%, 논술 2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자연계는 서류평가 50%에 면접 50%를 적용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 시

험 성적으로 3배수를 뽑은 뒤 학생부·논술·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성균관대=수시 2-1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최대 50%를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시모집 일반전형 인문·자연계는 선발 인원의 50%를 수능 성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정시모집 자연계에서는 자연계 논술이 도입된다.

◇연세대=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의예과·치의예과·예체능계를 제외한 모집단위에서 50%를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

나머지는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가 반영된다. 수시모집 2학기 모집 1차에서 학생부를 90%까지 반영하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250명 내외를 학생부(교과 80%+비교과 10%)와 인성면접(10%)만으로 선발한다.

◇이화여대=인문계·자연계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인 430명은 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절반에는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가 반영된다. 올해는 자연계도 논술고사를 치른다. <연합뉴스>

달라진 대입제도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성적 부풀리기 막기 위해 석차와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석차등급(백분위)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과 원점수만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 원점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표기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2007학년도까지는 수능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책정됐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9등급으로 나타

학생부 석차등급·원점수 기재

수학능력시험 9등급제로 전환

기된다. 수능성적에 따른 과도한 석차경쟁, 학생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부 중심의 입시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

누 제공한다. <수능 '언어'문학 축소,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수능 언어영역의 경우 문학 수가 기존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10문항 줄고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단축된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입시기관으로 변질하는 것

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하므로 외교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과학고 졸업생이 이공계열로 지원하면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와 조선대 등 상당수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2학기 모집을 통합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연합뉴스>

정시모집(일반전형/자연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분포

Table showing admission ratios for various universities (e.g., KAIS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ross different criteria like 100%, 80%, 60%, 50%, 40%, 30%, 30% or less.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분포

Table showing the distribution of university admission ratios based on SAT scores (100%, 80%, 60%, 50%, 40%, 30%, 30% or less).